

2019년 4월 2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FANG 기업들 강세에 힘입어 상승 미 국무부, 이란 석유 수입 제재 예외 연장 철회

미국, 이란 제재 강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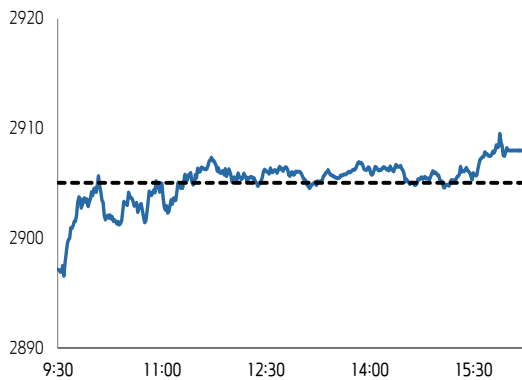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 출발. 특히 미국의 제재 확대에 대해 이란이 강한 반발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옴. 그러나 이번주 S&P500 중 1/3 넘게 실적 발표 한다는 점을 감안 실적에 주목하며 낙폭 축소. 특히 FANG 기업들이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반등을 주도(다우 -0.18%, 나스닥 +0.22%, S&P500 +0.10%, 러셀 2000 -0.36%)

미 증시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 및 실적 시즌의 영향을 받아 변화. 먼저 미국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중국과 한국 등 8 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안기로 했다고 발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 이라고 언급했으며, 면제 조치는 없다고 주장. 중국은 하루 61.3만 배럴, 한국도 38.7만 배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수입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향후 시나리오는 세가지로 사우디를 비롯해 일부 OPEC 국가들과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높여 원유시장 안정. 두 번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데, 이 시나리오는 주요 원유 수송로인 점을 감안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도 있어 주목. 이란은 자국의 수출 방해를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 했었음. 이 경우 단기적으로 WTI가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 조치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이란의 사우디 인프라시설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해야 할 듯. 이는 물가상승압력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 가능성도 있음.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16.65	+0.02	홍콩항셱	29,963.26	휴장
KOSDAQ	762.01	-0.07	영국	7,459.88	휴장
DOW	26,511.05	-0.18	독일	12,222.39	휴장
NASDAQ	8,015.27	+0.22	프랑스	5,580.38	휴장
S&P 500	2,907.97	+0.10	스페인	9,581.90	휴장
상하이종합	3,215.04	-1.70	그리스	778.42	휴장
일본	22,217.90	+0.08	이탈리아	21,956.59	휴장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FANG Vs. 소매유통업종

엑손모빌(+2.18%), 셰브론(+1.70%), 코노코필립스(+1.61%), EOG리소스(+3.08%)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상승 했다. 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2.59%) 등 항공주는 하락 했다. 여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가솔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며 월마트(-0.78%), 코스트코(-0.97%), 노드스트롬(-3.90%), L브랜드(-3.19%), 메이시스(-2.99%) 등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 했다. 한편, 이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SPG(-2.44%), 리얼티 인컴(-0.93%) 등 리츠 금융회사도 급락 했다.

유나이티드 헬스(+2.42%)는 최근 정치적 압력 여파로 하락한 이후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했다. 김벌리클락(+5.42%)은 양호한 실적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산업용품 유통업체인 W W Grainger(-5.51%)은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급락했다. 테슬라(-3.85%)은 상해에서 차량 화재 발생 소식 여파로 급락 했다. 알파벳(+0.99%), 페이스북(+1.77%), 아마존(+1.38%), 넷플릭스(+4.71%) 등 FANG 기업들은 실적 개선 기대가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68%	대형 가치주 ETF(IVE)	-0.06%
에너지섹터 ETF(OIH)	+2.72%	중형 가치주 ETF(IWS)	-0.41%
소매업체 ETF(XRT)	-2.05%	소형 가치주 ETF(IWN)	-0.80%
금융섹터 ETF(XLF)	-0.29%	대형 성장주 ETF(VUG)	+0.27%
기술섹터 ETF(XLK)	+0.23%	중형 성장주 ETF(IWP)	+0.0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8%	소형 성장주 ETF(IWO)	-0.02%
인터넷업체 ETF(FDN)	+1.17%	배당주 ETF(DVY)	-0.30%
리츠업체 ETF(XLRE)	-1.1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5%
주택건설업체 ETF(XHB)	-0.7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0%
바이오섹터 ETF(IBB)	+0.05%	미국 국채 ETF(IEF)	-0.14%
헬스케어 ETF(XLV)	+0.06%	하이일드 ETF(JNK)	-0.14%
곡물 ETF(DBA)	-1.20%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0.08%	Long/short ETF(BTAL)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07.08	+2.05%	+1.50%	+4.58%
소재	359.56	-0.67%	-1.16%	+5.65%
산업재	657.60	-0.32%	+1.01%	+6.96%
경기소비재	941.93	-0.22%	+0.61%	+6.45%
필수소비재	585.13	-0.04%	+0.92%	+2.44%
헬스케어	994.29	+0.07%	-4.33%	-5.26%
금융	452.49	-0.26%	+0.41%	+7.46%
IT	1,368.48	+0.23%	+1.55%	+6.35%
커뮤니케이션	167.17	+0.72%	+1.41%	+5.49%
유틸리티	290.31	-0.11%	-1.69%	-2.14%
부동산	217.56	-1.05%	-4.22%	-2.0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별 차별화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9% MSCI 신흥 지수 ETF 도 0.6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64 계약)로 0.25pt 상승한 286.7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9.8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급등 했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 조치에 따른 결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여지가 높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 하고 있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유가의 높은 수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유가가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이라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급등할 때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부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를 감안 당분간 한국 증시는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기지 폭격이나 이란의 사우디 인프라 시설 공격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높아진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건설, 기계, 조선, 상사 등은 이익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겠지만, 화학, 항공, 해운 등은 비용 부담을 감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 판매량 감소

3 월 미국 기존 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4.9%(yoy -5.4%) 감소한 521 만 건에 그쳤다. 특히 서부(mom -10.7%), 중서부(mom -8.6%) 위주로 감소했다. 반면, 기존주택 판매 중간가격은 전월 대비 3.7%(yoy +3.8%) 상승한 25 만 9,400 달러를 기록했다. 평균 판매 가격도 전월 대비 3.0%(yoy +2.5%) 상승한 29 만 7,200 달러를 기록했다.

3 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31) 보다 개선된 -0.15 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3 개월 평균은 전월(-0.18) 보다 부진한 -0.24 를 기록해 성장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미국 국무부가 이란산 석유 수입 제재 예외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미국과 사우디, UAE 등은 이 여파로 원유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유량을 증산할 수 있다고 언급 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자 급등했다. 향후 사우디와 미국의 산유량 증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 당분간 관련 이슈에 따라 원유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호주 달러, 러시아 루블화 등 에너지 관련 국가들의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다만, 기존주택 매매 부진 등으로 상승은 제한되었다.

금은 미국과 이란간의 마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5% 하락 했으나, 철근은 0.16%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5.55	+2.31	+2.39	Dollar Index	97.301	-0.08	+0.37
브렌트유	74.04	+2.88	+3.48	EUR/USD	1.1258	+0.12	-0.41
금	1,277.60	+0.13	-1.36	USD/JPY	111.95	+0.03	-0.08
은	15,058	+0.13	+0.03	GBP/USD	1.2981	-0.09	-0.91
알루미늄	1,867.00	0.00	+0.21	USD/CHF	1.0158	+0.12	+1.17
전기동	6,476.00	0.00	-0.12	AUD/USD	0.7135	-0.24	-0.53
아연	2,767.00	0.00	-5.50	USD/CAD	1.3349	-0.31	-0.13
옥수수	363.50	-1.02	-1.62	USD/BRL	3.9347	+0.18	+1.36
밀	441.75	-1.45	-5.71	USD/CNH	6.7119	+0.14	+0.07
대두	890.75	-0.39	-1.98	USD/KRW	1141.50	+0.40	+0.74
커피	92.85	-0.05	-0.11	USD/KRW NDF1M	1139.82	+0.38	+0.5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583	+2.35	+2.88	스페인	1.065	0.00	-1.50
한국	1.935	+2.50	+1.00	포르투갈	1.163	0.00	-2.90
일본	-0.031	-0.10	-0.60	그리스	3.302	-0.10	+2.70
독일	0.025	0.00	-3.10	이탈리아	2.601	0.00	+2.40